

2023년 10월 22일(주일) 제1653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3년 10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15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3년 다섯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

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례자 최해수 계 1명
- 입교자 배은준·배은찬·안준현·오지훈 계 4명
- 유아세례자 김현서·오유주·전종희·한시온 계 4명 총 9명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가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https://meet.google.com/iei-obmw-fhs>

대입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대입수능 당일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수능 마치는 시간까지 교회에서 종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웨스트민스터홀입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2023 문화예술목회 워크숍

10월 23일(월) 14:00-10월 24일(화) 12:00 장소:서울교회

한국문화선교연대는 서울교회에서 10월 23일(월), 24일(화) 양일간 문화예술목회 워크숍을 갖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예술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전국 교회를 연결하고 교회가 지

역사회의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여 변화되는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의 선교적 과제를 지속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음 상한 날의 감사

(갈 6:6-10)



손달익 위임목사

빌립보에 간 바울 일행이 전도 중에 접치는 귀신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자 그녀에게 접치는 능력이 사라졌고 여종의 주인들은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소했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손발이 다 풀렸습니다.(행 16장)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하시고 그들은 다시 선교현

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못 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1. 갈라디아교회의 상황

바울이 갈라디아를 방문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에는 매우 의외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특정 도시를 의미하는 지명이 아니라 광범위한 행정구역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역들과 2,3차 때에도 계속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들이 갈라디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갈 4:13)고 한 말씀과 같이 바울은 질병 치료차 이곳을 방문했다가 전도를 한 것이었는데 뜻밖의 성과가 있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갈라디아교회라는 말은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를 의미합니다.(갈 1:2)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고 사랑했습니다.(갈 4:14)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은 그 지방을 떠나 다른 지역을 선교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의 침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소개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판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므로 정식 사도가 아니라면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라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성경과 신앙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었던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심하게 흔들렸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등 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심하게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격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한순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돌아선 그들의 모습에서 배신감을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고, 죽을 만큼 고생도 했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실망, 분노, 배신감, 인생에 대한 회의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빠질수록 감정에 사로잡혀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적 대응을 하고, 자기 내면을 분노와 격한 감정으로 황폐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한 자기 관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2. 위기관리 처방들

바울은 본문에서 진정한 위기 극복의 처방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가치관의 중심축이

세상과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동되면
땅이 꺼지듯 실망할 이유도 없어지고
화산이 터지듯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면 감사할 뿐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그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는 과분한 영광일 뿐입니다

첫째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6-7절)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말씀은 심는 자만 거둘 것이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현실이 실망스럽고 일생의 노력이 실패의 위기에 봉착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새로운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 때문에 실망과 분노로 상처 입은 영혼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실망스럽다 하여 현실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둘째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8절). 실망하고 분노하는 일은 대부분 부질없는 세상의 영광과 이익을 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히 11:24-25). 모세가 믿음으로 생각했더니 고난이 더 유익한 일이 되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그렇게 광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발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가치관의 중심축이 세상과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동되면 땅이 꺼지듯 실망할 이유도 없어지고 화산이 터지듯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면 감사할 뿐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그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는 과분한 영광일 뿐입니다.

셋째 영원한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9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희망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합 왕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평생토록 괴롭게 한 사람이었고, 이 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만연케 만든 사람이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아합의 아들들은 아비 못지않았습니다. 이때는 길 가던 아이들도 선지자를 조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담담히 걸어가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위기의 민초들 곁으로 돌아가 버려진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하며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의 일로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상황의 어려움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 위태로운 것은 분노와 불편한 마음과 실망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허하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위기와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여전히 불편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이제는 서울교회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옥종호 안수집사
(2023 사명자대회
교육분과)

서울교회가 2023년도 사명자대회를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대치동 새성전 시대와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하였습니

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서울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교회 분쟁으로 형제자매처럼 지내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여겨지고 갈라져 남아있는 우리

가슴에도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처를 안은 채 서울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자로서 서울교회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서울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회복과 자라나는 다음세대의 부흥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각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공동기도문을 들고

교회와 개인과 가정, 나라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50일 동안 낮 12시에 3분이상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서울교회 교육부서는 사명자대회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기도회 참석 독려와 주일 교회학교 각부서 친구초청 전도활동을 통해 사명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영아부에서 소망부까지 모든 교회학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서울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7교구 가을 야유회 후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양순 권사
(7교구)

지난 14일, 토요일~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기다리던 7교구 추계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오랜만의 모임에 미리부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야유회를 기다렸습니다. 천둥, 번개의 예보가 있고 비록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는데도, 야유회에 가장 적합한 날씨를 허락하실 줄 믿고 모처럼의 야유회를 맞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호흡하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기쁨을 크게 기대하며 참석하였습니다.

오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을 하늘과 숲

가운데 펼쳐진 자연 속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기쁨을 크게 하시고 교구 식구들과 풍요로운 사랑을 느끼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야외에서의 예배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을 담은 '백운재'에서의 맛있는 점심과 간단한 후식 이후 7교구 모든 식구들은 백운호수 주변 산책을 했지요. 오전부터 비는 오락가락 하였지만 호수의 산책길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가 되었고 하늘은 가을 날씨답게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음 놓고 우산도 없이 산책하고 오는 도중,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는데 목사님을 비롯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나 보다는 교구 식구들을 먼저 배려하고 챙기시

려 바빠 서두르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눈시울을 적실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비 맞으실까봐 교구 목사님께서 양복 걸옷을 벗어 권사님에게 씌워 주시는 모습, 우산을 씌워 드리기 위해 전화 통화로 어디쯤 계실까 걱정하며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듯 참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이었고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간직되는 7교구 식구들의 교제가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마음에는 상처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런 교제의 시간을 통해 사랑이 뜨거워지고 기쁨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초등부(부장:임대중 안수집사)는 가까운 공원에서 야외예배를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유년부(부장:이승준 안수집사)는 유년부 전체가 은마아파트 사거리와 한티공원 앞에서 노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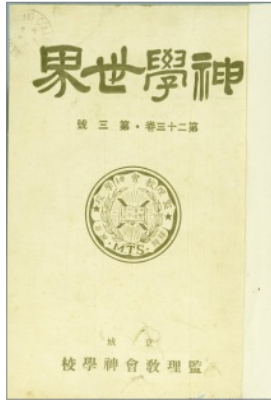


야기학교는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교육도구를 이용해 말씀 이야기를 듣고 배운 후 주제에 따른 활동을 했습니다.

장로회의 여권 논쟁



신학지남



신학세계



전밀라 목사



전밀라와 명화용 두 여성 목사 안수식 거행 장면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의 지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남녀평등을 기독교의 특징으로 보았다. 1920년대 중반부터 기독교 잡지에는 기독교와 남녀평등을 연결시키는 글이 나왔다. 일례로 샤프 선교사(Charles E. Sharp)는 1926년 장로회의 신학잡지인 「신학지남」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여자의 지위를 이전보다 높게 대접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결과 가운데 한 가지 큰 결과가 되는 것이니라”라고 기술했다.

감리회의 잡지인 「신학세계」에는 여성 선교사들이 1926년부터 1932년까지 12편의 글을 실었다. 역사상 중요한 여성 기독교인을 소개하고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지지하는 글들이었다. 급여와 교회 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장로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샤프 외에도 남궁혁이 2편 정도의 글에서 ‘서양 여자의 자유와 지위는 기독교의 인권존중의 교훈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여성의 권리에 관심을 보였다.

1920년대 후반은 근우회의 조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권리주장이 조금씩 활발해지던 시점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지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회 내부의 남녀평등 문제는 먼저 감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30년 미국 남북감리회 선교부가 통합하며 조직한 ‘기독교 조선감리회’는 남녀평등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했다. 조선감리회는 1931년 교단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에 교직자의 자격에 남녀 구별이 없다고 명시하면서 남녀평등을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그해 실제로 여성 선교사 14명을 목사로 안수했다. 미국에서도 여성의 목사 안수는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발생한 파격적

인 일이었다.

감리회의 여성안수는 장로회에 영향을 미쳤다. 1933년 함남노회 여신도 104명이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발언권과 치리권을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총회에 올라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34년 함남노회의 여신도들은 다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639명의 여성이 힘을 합쳤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다. 그리고 김춘배 목사가 총회 직전에 이를 지지하는 글을 「기독신보」에 기고했다.

“부결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해에 힘드는 바이외다. 아직까지도 남존여비의 낡은 풍습을 고수함도 아닐 것이요, 여자는 거내불외(居內而不外: 집 안에 살며 바깥일을 말하지 않는다)하라는 권위가 된 도덕을 지키노라고 그러는 것도 아닐 것이요, 여자는 조용히 하여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이천 년 전의 한 지방 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닐 터인데요.”

김춘배는 이어 감리회는 벌써 여목사까지 있는데 장로회에서는 여성차별적인 헌법을 두는 것이 모순일 뿐 아니라, “남녀평등이니 여자해방이니를 강단에서 외치는 우리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 법을 하루를 더 둔다면 우리 스스로를 하루 더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성서의 본문 내용을 ‘이천 년 전의 한 지방 교회의 교훈과 풍습’이라고 말한 것이 보수적인 인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34년 장로회 총회는 김춘배의 발언에 대한 연구위원회를 꾸렸고 이들은 1년 뒤 총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

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여성의 교권을 불허한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었다. 연구위원회는 김춘배의 성서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교역자됨을 거절”할 것을 보고하였다. 목사 안수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이제 문제는 남녀평등에서 성서해석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김춘배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한다는 석명서(釋明書)를 발표하고 물러서야 했다. 이런 감리회와 장로회 사이의 사뭇 다른 분위기는 이듬해 발생한 “아빙돈 단권주석 사건”에서 더욱 명확하게 보였다.

감리회는 해방 이후인 1955년 한국인 여성, 전밀라와 명화용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다. 처음부터 부부를 함께 교육하여 목회자로 양성하는 구세군이나 특정 인물의 카리스마가 강하게 작용하는 군소교단의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한국 여성이 목회자가 된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장로회 중에는 1956년 여성 장로 제도를 채택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의 여성안수가 가장 빠르다 할 수 있는데,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1977년으로 한참 후의 일이었다. 우리 교단은 1995년이 되어서야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1996년 여성 목사를 배출하였다. 성결교회와 침례회, 장로회 백석 등은 21세기에 들어와 여성 안수를 허용하였지만 여전히 장로회 합동이나 고신, 합신 등 더욱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일례로 1997년부터 여성 목사안수를 허용해 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5월 여의도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49명 가운데 47명이 여성인 독특한 현상을 보였다. 곧 여성들이 남성과 차별 없이 교회를 이끌어 갈 날이 올 것이다.

동정



- 3교구 전광영 은퇴안수집사 중국 베이징 소재 탕 컨템포러리 베이징2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개인전 참석차 10월 24일(화) 출국

식사 제공

- 2교구 노경신 권사, 딸 박지혜 성도 사위 주현중 성도, 아들 박상우 성도 (고 박동원 은퇴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70인전도대 10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오후 1시-2시)	수	전도회 (오후 1시-2시)	토	선교회 (오후 1시-2시)
10.1	자원자	10.4	도르가, 루디아, 뵤뵤	10.7	빌립, 안드레, 베드로
10.8	자원자, 마리아	10.11	한나	10.14	바울, 엘리야
10.15	자원자	10.18	에스터	10.21	모세
10.22	자원자	10.25	리브가	10.28	이삭
10.29	자원자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0월23일	월	눅 14-16		10월23일	월	렘 37-46	
10월24일	화	눅 17-18		10월24일	화	렘 47-52	
10월25일	수	눅 19-20		10월25일	수	애 1-5	
10월26일	목	눅 21-22		10월26일	목	겔 1-7	
10월27일	금	눅 23-24		10월27일	금	겔 8-15	
10월28일	토	요 1-2		10월28일	토	겔 16-20	
10월29일	주일	요 3:1-4:45		10월29일	주일	겔 21-27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가는 순례의 여정에 은혜 내려 주시고, 입술의 고백보다 행함의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신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파송선교지와 농어촌교회, 군선교지를 돌보아 주소서.
3.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보살펴 주시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 전도사
박미라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